

김기문 “中企 경쟁력 살리는 규제개혁, 여야 힘 모아야”

중기중앙회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 킬러규제 혁신, 국회에 지원 촉구 근로시간 유연화·중처법 개선 시급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3일 오전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가 ‘킬러규제 TOP 100’ 가운데 입법이 필요한 24건에 대해 국회에 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료 등 경비 포함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입주업종 변경 간소화 ▲과도한 신규화학물질 등록규제 완화 ▲신의료기기 규제완화를 통한 스타트업 혁신 등이 대표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규제개혁은 정부가 예산 한푼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규제개혁”이라며 “경제

가 좋지 않은 지금은 규제개혁을 가장 우선해야 경제가 살아난다. 이 과정에서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한다. 기업, 정부, 국회가 삼위일체가 돼 (규제개혁을 통해)기업 경쟁력을 강화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규제의 90% 가량은 시행령이나 대통령령 등 정부의 의

반드시 통과해야 할 입법과제

중소기업 300곳 대상 설문조사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지만으로도 개혁할 수 있다. 나머지 10% 정도는 입법 사항이라 국회가 잘 작동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노동(규제)은 99%가 입법 사항이다.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힘을 써줘야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가 대표적인 킬러규제 중 하나로 꼽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

대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80%가 관련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유예 기간을 최소 2년 더 늘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68만 곳에 이르는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가운데 정부의 관련 컨설팅 지원도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1만6000개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처벌’의 핵심 판단기준인 ‘위험성평가’도 올해 5월 고시가 개정돼 현장 안착까지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다.

10월 본격 시행하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노무비, 전기료·가스비와 같은 경비 등 적용 항목을 확대해달라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엔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만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원재료 뿐만 아니라 인건비로도 불리는 노무비, 경비 등의 각종 비용이 원가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에도 연동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것이다.

김 회장은 “외국인근로자 쿼터는 애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구인광고를 내도 내국인이 오지 않는 중소기업 제조 현장에선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들어와야 가동률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런 현실에서 중소기업계는 외국인력과 관련한 사업장 변경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사용자의 책임이나 사회 통념상 불가피한 사정이 아닐 시 일정기간 사업장 변경을 막고, 사업장 변경 횟수도 기존의 5회에서 3회로 줄여야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입법과제로 ‘근로시간 유연화’(58.3%)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54.3%)을 각각 1·2순위로 꼽았다.

이외에 ▲증여세 연부연납 확대 등 기업승계 활성화(45.7%) ▲사업장 변경 제한 등 외국인 근로자 제도개선(43.7%) ▲협동조합 공동행위 담합 배제 등 중소기업 공동사업 촉진(38.3%) 등이 뒤를 이었다.

/서귀포(제주)=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기·소상공인 지원정보, ‘왔다’로 한번에

중기부, 지원사업정보 앱 서비스 시작 분야별 사업공고 조회 가능… 편의성 ↑



특히 금융, 기술, 인력, 수출, 창업 등 분야별 사업공고 조회가 가능하며 최근 2주간의 지원사업도 달력 형태로 알람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지원사업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모바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왔다’ 앱 서비스를 14일부터 시작한다.

13일 중기부에 따르면 ‘왔다’ 앱은 디지털플랫폼정부부 지향하는 ‘모든 서비스는 한곳에서’와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실현하고, 국민·중소기업 편의성 제고를 위해 중앙·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정보를 통합제공 한다.

비스 할 예정이다. 또한, 동행축제, 복수의결권 제도, 납품대금 연동제 등 중기부 정책정보도 주기적으로 알려준다.

이영 장관은 “왔다’ 앱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지원사업 정보를 쉽게 확인해 활용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 기능개선을 통해 모바일에서 지원사업 신청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왔다’ 앱은 중기부 누리집이나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여경협, 여성기업 애로 해결사 역할 ‘톡톡’

여성기업경영애로지원센터 운영 담임제 통해 총 1790개사 컨설팅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재)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여성기업 경영애로지원센터’가 지난해 담임제를 통해 총 1790개사의 컨설팅을 펼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13일 여경협에 따르면 2016년부터 중소기업부의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영애로지원센터는 창업·경영, 회계·자금, 수출·무역, 인사·노무 등 전문가6명이 전국6개 광역권에 상주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외 선배 여성

CEO 및 여성전문가 53명도 추가 멘토링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한해 경영상담은 2545건, 멘토링 180건을 각각 수행했고 만족도 조사에서도 96.6점을 받아 여성기업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현재 1800건의 상담이 이뤄져 컨설팅 수요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이정환 이사장은 “여성기업의 창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창업과 수출, 마케팅, 회계, 특허 등 컨설팅을 활성화해 여성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디라이트, ‘ESG지속가능센터’ 신설

ESG 선제적 솔루션, 리스크 관리 등

디라이트(D'Light)가 다양한 기업들의 ESG 선제적 솔루션을 마련하기 위해 ‘ESG지속가능센터’를 신설한다.

13일 디라이트에 따르면 최근 기업들은 재무적 성과는 물론, 환경·사회·지배구조(ESG)의 세 가지 핵심 요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따라 ESG에 대한 중요성은 투자 시장에서부터 글로벌 경제 규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는 ▲산업안전 ▲글로벌 공급망 감사 규제 ▲기후 위기 대응 등이 포함된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기업의 경영환경과 규모에 맞춰 ESG 요소를 경영시스템에 내재화하고, 관리를 돕는 ‘ESG지속가능센터’를 개설했다.

디라이트 ESG지속가능센터는 조원희 대표변호사가 센터장을, 조선희 파트너변호사가 센터장을 맡아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ESG 관련 법·규제 자문을 전담한다.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기업들이 ESG 경영 체계를 선제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글로벌 수준의 ESG 철학을 기반으로 더 큰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게 돕겠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경동나비엔 초정밀 ‘속면매트’ 선보

경동나비엔이 0.5도 초정밀 온도 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최적의 숙면 환경을 제공하는 ‘나비엔 속면매트’(사진)를 출시했다.

13일 경동나비엔에 따르면 나비엔 속면매트는 0.5도 단위로 조절할 수 있는 온도제어 기술로 사용자에게 맞는 최적의 숙면온도를 제공한다.

제품은 속면매트 온수와 속면매트 카본으로 출시했다. 속면매트 온수는 경동나비엔의 온수매트를 더욱 업그레이드한 제품이다. 데워진 물이 매트 안을 순환하기 때문에 건조하지 않고 포근한 온열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공영홈쇼핑, 기업은행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저금리 대출 ‘상생플러스펀드’ 운영

공영홈쇼핑이 IBK기업은행과 손잡고 소상공인 금융지원제도인 ‘상생플러스펀드’를 운영한다.

13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전날 서울을 지로 IBK파이낸스타워에서 기업은행과 ‘중소·소상공인을 위한 상생플러스(동행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상생플러스펀드’는 공영홈쇼핑이 지난해 협력사 금융지원을 위해 조성한 ‘상생펀드’를 기반으로 감면 금리를 높이고 소상공인 보증 지원을 추가해 실효성을 강화한 제도다. /김승호 기자

공공기관이 직접 재원을 출연해 은행, 보증기관 등 3자 협력을 통해 보증까지 제공하는 대출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로써 공영홈쇼핑 협력기업은 300억원 규모의 ‘상생플러스펀드’를 통해 저금리 대출로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에 비해 담보가 부족해 금융대출에 큰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보증제도’도 신설했다.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료 등 최대 1.2%의 금융비용을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김정은 만남 푸틴 “북한 인공위성 개발 돕겠다” /사진 뉴스스
▲아이폰15에도 애플 주가 전일 대비 1.7% ↓

▲日정부 “北,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 발사”
▲中 불법과외 적발시 최대 1800만원 벌금



▲日기시다, 대규모 개각 단행… 외무상 등 각료 13명 교체
▲리비아 홍수 사망자 5300명 넘어… 실종자 1만명 /사진 뉴스스